



남원시, 가족센터·공동육아나눔터 대상 현장점검

남원시가 가족지원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예산 집행의 투명성 확보, 공동육아나눔터의 안전관리기준 준수 등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 14일과 15일 2일간 남원시가족센터 및 공동육아나눔터 5개소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사항은 종사자 채용관리, 직원 복무상황, 예산회계관리, 사업운영 현황, 그리고 공동육아나눔터 안전관리기준 이행 여부 등과 센터의 조직도 게시, 상담실 확보, 소방시설 및 화재예방교육 실시,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방역계획 이행 등 시설 환경관리에 중점을 두었다.

또한 종사자 공개경쟁 채용 준수, 자격증 및 근로계약 체결 여부 확인을 통해 전문성 확보와 투명한 인사관리를 강화하며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회계관리 점검도 함께 병행된다. /남원=김기두 기자



김제경찰서, 집중호우 대비 안전활동 총력

김제경찰서(서장 박승준)는 16일 오전 10시 경찰서장실에서 집중호우 대비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대책회의는 이번주 주말까지 예보되어 있는 집중호우 대비 사전 안전활동을 위해 개최한 것이다.

박승준 김제경찰서장 주재로 경비안보과장, 범죄예방대응과장, 교통과장, 경비안보계장, 교통계장, 범죄예방계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해 김제 소재 인명피해 우려 장소 사전 순찰활동 강화, 유관기관 간 합동구축, 전 직원 비상연락 체계 유지 등 사전 안전활동을 다시 한번 재점검했다.

또한 김제 소재 공사현장 등 집중호우로 인한 인명피해 우려장소에 대한 안전시설물 정상 작동 여부, 주민 대표장소 등을 재차 면밀히 확인하는 현장 점검도 다시 한번 시행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남원소방서, 전기화재 예방수칙 준수 당부

남원소방서(서장 김승현)는 최근 부산의 한 아파트 화재가 전기적 요인으로 추정됨에 따라 전기화재 예방수칙의 철저한 준수를 당부했다.

전기화재 안전수칙으로 △콘센트 내부 먼지 주기적 청소 △콘센트 주변 습기 주의 △차단 기능 있는 멀티탭 사용 △플러그와 콘센트 접촉불량 확인 △피복 벗겨진 전선 교체 △플러그는 머리 부분 잡고 뽑기 △사용하지 않을 땐 플러그 뽑기 △젖은 손으로 콘센트 만지지 않기 △누전차단기 작동 여부 점검 등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토종 종자를 지키는 사람들... 작지만 깊은 울림 전하다

전북자치도의회 앞마당서... 토종 감자 전시·시식·판매 행사 열려

16일 오전,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앞마당에 작은 시식대가 차려졌다.

토종 감자가 가지런히 접시에 썬서 이쁘게 차려져 있고, 모종이 접시마다 설명서와 함께 놓여있었다.

이러한 익힌 토종 감자를 오가는 이들이 하나둘 손에 들고 맛을 보았다.

감자는 개량종 감자에 비하여 크기 작았고, 모양도 그렇게 이쁘지는 않았다. 하지만 한입 베어 물자 특유의 향과 깊은 맛이 고스란히 전해졌다. 이날 행사는 완주군 고산면의 '씨앗받는농부' 영농조합법인(대표 이종란)과 완주토종씨드림이 마련한 토종 감자 전시와 시식 및 판매 행사였다.

씨앗받는농부 영농조합법인과 완주토종씨드림은 토종 감자뿐만 아니라 토종 옥수수, 쌀, 고추, 마늘, 생강 등 8종의 토종 작물을 직접 재배하고 판매하고 있다.

이날 행사를 주관한 씨앗받는농부 이종란 대표는 "저희는 15년 전부터 토종 씨앗 농사를 시작했다. 사람들이 잘 모르는 감자도 많고, 맛도 참 다양하다. 이렇게 직접 보여드리고, 맛도 나눠드리면서 알리고 싶어 이 행사를 기획했다"고 말하며 "몇년 전부터 이러한 행사를 여러 곳에서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전국 농가를 찾아다니며 예전부터 마을 어르신들이 심어오던 종자를 수집하고 있다.

그렇게 모은 씨앗을 지역에서 다시 심고 거두며, 그 씨앗이 다음 해에도 이어질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어 우리 선조들이 농사지는 작물의 씨앗을 잘 보존 관리하고 있으며 후손에게도 잘 물려주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 대표는 "기업이 만든 종자는 대부분 한 번만 자라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농민들은 해마다 씨앗을 사야



하고, 점점 의존하게 되죠. 이런 구조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라고 설명했다.

씨앗받는농부 영농조합법인은 토종 농사를 짓는 데 그치지 않고, '농부 현장학교'를 통해 토종 씨앗의 가치와 농업의 의미를 시민과 나누는 활동도 하고 있다.

아이들과 주민들이 함께 씨를 뿌리고, 꽃을 보고, 수확하는 과정을 통해 생명의 순환을 배우는 교육도 진행 중이다. 이날 행사에는 약 50박스 분량의 토종 감자가 준비됐다. 판매 수익은 씨앗 보존과 농부 활동에 다시 쓰인다. 토종 씨앗을 지키는 일은 결코 거창하거나 대단한 일이 아닐지 모르나, 다만 이 일은 아주 꾸준하고, 손이 많이 가며, 오래 걸리는 일이다.

그리고 그 일을 묵묵히 해내는 사람들이 있다. 오늘도 땅에 씨앗을 심고, 수확한 작물을 나누는 농부들 덕분에 우리는 맛있는 밥상을 차릴 수 있고 이러한 일을 통해 우리는 유구한 5천 년의 역사를 이어가며 먹거리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이만호 기자



장수경찰서, 물놀이 장소 범죄·인명사고예방 순찰

장수경찰서(서장 황재현) 장수파출소는 16일, 본격적인 물놀이 시즌을 맞아 누리파크 발물놀이장 등 5개소에 대한 범죄 및 물놀이 사고예방 순찰활동을 실시했다.

장수파출소는 관내 대표적 물놀이 장소를 방문해 탈의실·화장실 내 불법촬영 여부에 대해 점검을 실시하고, CCTV와 비상벨 작동여부를 확인하는 등 성범죄예방 활동을 펼쳤다. 또한 물놀이장 내 안전요원 운영현황을 확인하고, 이용객 대상 물놀이 안전수칙을 홍보하는 등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에도 만전을 기했다.

박진수 장수파출소장은 "인명피해 및 범죄를 막기 위해 물놀이장, 계곡 등 물놀이 장소에 대한 주기적인 예방순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장수=고관호 기자



무주소방서·무주의용소방대연합회, 현혈 운동 동참

무주소방서(서장 김장수)와 무주의용소방대연합회(남성회장 김용찬·여성회장 윤정순)가 혈액 수급난 해소를 위한 생명 나눔 현혈 운동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이번 생명 나눔 현혈 운동은 저출산과 고령화로 현혈 가능 인구가 줄어드는 데다 중증 환자들의 수혈 수요 증가로 혈액 확보에 어려움이 커짐에 따라 마련됐다.

무주소방서와 무주의용소방대연합회의 자발적인 현혈 참여에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김용찬 무주의용소방대연합회 남성회장은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또 다른 방법인 현혈에 적극 동참하겠다"라고 전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남원사회복지관, 취약계층 위한 여름 꾸러미 사업 성료

'희망 여름 착착착 영양 튼튼 꾸러미' 지원

남원사회복지관은 지난 15일, 남원시 관내 취약계층을 위한 '희망 여름 착착착 영양 튼튼 꾸러미' 지원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사업은 전북사회복지관협회와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후원으로 진행되었으며, 지역 내 식사 및 영양 관리가 어려운 가구를 대상으로 삼계탕, 전복죽 등 영양이 높은 식품 꾸러미를 전달하여 건강한 여름나기를 지원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꾸러미에 담긴 식품은 지역 소상공인 업체에서 구매했으며, 직접 가구를 방문해 청년과 중장년층 대상의 안부 확인



된 청년 및 중장년층에 관한 관심과 지원이 더욱 필요하다는 점, 사업을 통해 건강한 여름나기를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과 모니터링을 병행하여 복지 수요를 파악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하는 역할도 수행했다.

복지관 강정아 관장은 "무더운 여름, 소외되고 고립된

전주매일

www.jmaeil.com
등록번호 전북 가00016

2009년 11월 23일 등록(일간)
(우)660-912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2 4층 (서노송동)

발행·편집인 조봉성 부회장 김승곤 부사장 김양욱
·대표전화 288-9700 ·업무국 FAX 288-9703 ·편집국 FAX 288-9704

전주지사 010-9645-4113	중앙지사 010-9088-6874	남원지사 632-3996	임실지사 010-9642-2725
심천지사 010-2333-4791	인후지사 246-6655	김제지사 545-1227	진안지사 433-3064
서신지사 272-9417	송전지사 255-2404	남원지사 632-0995	정읍지사 536-3787
호지지사 010-6645-9935	팔복지사 253-6844	순창지사 653-0444	장수지사 010-3682-6157
	군산지사 010-6789-0038	부안지사 010-2425-4182	무주지사 010-2300-4253
	익산지사 659-9923	고창지사 563-6999	

*구독료 : 월10,000원, 1부 500원 인쇄인 이상현 **본지는 신문윤리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